엑소더스

에피소드 1

인서트 성경구절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 악마는 다시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마침내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

마태오의 복음서 4장 1절-11절,

프롤로그

S#.1 예배당 대기실 (낮/건물안)

(페이드인) 거대한 광야그림이 벽에 걸려있다. 화면이 점점 클로즈아웃되면서 그것을 뒷짐을지고 지긋이 바라보고 있는 총제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때 뒤에서 김비서가 정중하게 부른다. (오프닝 크레딧, 메인스탭 자막)

김비서:(OFF) 총제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총제는 말없이 대기실에서 걸어나와 예배당으로 들어선다. (총제 트래킹샷) 총제가 나오는 순간 예배당의 모든 신도들이 일제히 환호한다. 총제는 손을 들고 환호에 응답하다가 손을 들어 주먹을 쥔다. 일순간 열렬한 환호는 멈추고 장내는 조용해진다. (총제의 카리스마를 상징) 화면이 천천히 회전하면서 총제의 얼굴을 보여준다. 총제는 약 60대정도의 남성이다. 얼굴에는 약간의 미소를 띄고 있다. 전체적으로 푸근한 이웃집 아저씨같은 인상이다. 총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예배당을 쭉 흩어보다가 입을 연다.

총제: 오늘 정말...우리 공동체 분들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예배당을 가득 채워주시니...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차있음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신도들: 아멘

총제: 여러분.. 저는.. 선택받은 자이자.. 진리를 아는 자이고.. 모든 지식과 상식을 넘어선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때 옆에서 거들은 자이고.. 그분의 권능이 허락된 자입니다.

신도들: 믿습니다. 총제님.

총제: 지금 세계 경제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이들을 추종하는 극소수 기득권에 의해 장악되어있습니다. (Cut to) 이게 베리칩이라는 건데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네 짐승의 표 666입니다. 사탄이.. 우리들 몸에 칩을 심어서 정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Cut to) 얼마전에 저 중동에서 지진 났었죠? 그거 다 제가 이미 예언한거에요. 제가 그랬죠? 중동쪽에서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Cut to) (다소 흥분하면서)미국대통령도 내말 한마디면 꼼짝못해! 어딜 감히 일개 대통령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인 내말을 거역해? 그래요 안그래요? 할렐루야!(Cut to) (언제그랬냐는듯 다시 차분하게)지금 바깥에서 수많은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보잘것없는 권력을 등에 없고 감히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간악한 사탄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총재 그리고 품에서 화려하게 생긴 책을 꺼낸다.

총재: 누구든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오직 이 생명책!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입장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도들의 간절한 눈빛이 생명책에 모아지고 있다. 다소 황당한 설교지만 총제는 열변을 토하고 사람들이 열렬히 동의하면서 총제의 말을 경청하고 있지만 구석에서 앉아있는 김비서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굉장히 한심한 표정으로 이를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목사가 눈치를 준다.

총제: 여러분 지금 바깥세상에는 여러분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육체를 더럽히는 수많은

위험요소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송전탑이 있잖아요? 거기에 5G기지국이 곧 생길겁니다. 전파가 너무 강해요. 사람들의 정신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5G는 인터넷 빨리 하라고 만들어진게 아니에요. 그날이 오면 프리메이슨이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해하려고 전파공격을 할것입니다. (차분하게) 자 그날이 오기전에 그럼 대비를 해야겠죠? 여기 하나님이 내려주신 우리 소중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만든 특효약이 있습니다. 이미 마시고 계신분들도 있으시겠죠?

간부가 총제에게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생수통을 하나 갖다준다. 그냥 생수통에 상표만 뗀것처럼 보이는 조악하기 그지없는 수준.

총제: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내려주신 성령의 힘으로 만든 생명유입니다. 이것만 마시면 병원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어딜 보잘것 없는 과학기술과 성령의 힘을 비교하려고 해! 이 생명유가.. 바로... 만병통치약입니다.

이후로 밴드가 악기를 연주하고 총제는 찬양을 하면서 장내의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진다. 사람들은 열광을 넘어서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도 속출한다. (보기에 우스꽝스럽지만 대단히 진지하게)

총제: 마귀들아.. 물러가라!

총제가 손을 휘두르자 광기에 찬 사람들이 파도처럼 쓰러진다. 뒤에서는 밴드가 찬송가를 연주하고 사람들은 울면서 과장스럽게 총제에게 열광한다. 그 사이에 한 남자 남집사가 반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총제를 바라보고 있다. (카메라 다수의 신도들 중에서 남자의 얼굴로 천천히 클로즈업 동시에 사운드도 페이드아웃 무음 이명현상) 표정은 멍하고 입은 실실 웃고 있으면서 총제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망상속에 빠져있는 듯한 다소 소름돋는 표정.

블랙아웃

S#.2편의점 (낮/건물안)

대낮의 편의점 안 군복을 입은 영순이 편의점 과자코너 앞에 서있다. 편의점 안에

손님은 영순혼자밖에 없다. 물건을 고르는둥 마는 둥 하면서 어색하게 카운터쪽을 계속 힐끔 본다. 그리고 다음 칸으로 넘어간다. 이번에는 조금더 가까이서 카운터쪽을 다시한번 힐끔 쳐다본다. 우유하나를 고르고 카운터에 올려놓는다.

영순: 저.. 담배도 하나 주세요

알바생 은혜가 귀엽게 웃으면서 말을 건다.

은혜: 저 멋있으세요
영순: ...네? 저요?(놀라면서)
은혜: 네.. 군인이시잖아요. 제 동생도 지금 군대 가있거든요.
영순: 아.. 네.. 감사합니다. 하하
은혜: 근데 근처 사시나봐요. 자주 오시느거 보면..
영순: 그럼요...그.. 근처 살아요.
은혜: 어디사시는데요?
영순: 천호동이요.
은혜: (고개를 들며 이상하다는 듯이) ...거기는 지하철로 30분거리인데요?
영순:...삼...삼십분이나 걸려요? 하하... 그렇게 오래 걸렸나?..죄..죄송합니다..

영순 자신의 대답이 바보같다는 생각에 서둘러 나오려고 한다. 그때 은혜가 영순을 부른다.

은혜: 저 잠깐만요..
영순: 네..네??
은혜: 물건 가져가셔야죠...
영순: 아 네... 죄송합니다.(영순 머리를 긁으며 물건을 챙긴다.)
은혜: 그래도 담배는 끊으시는게 좋을거 같은데..
영순:...네?

은혜 쑥쓰럽다는 듯이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한다.

은혜: 그냥요.. 건강에도 안좋고.. 그리고 저 담배피는 사람 안좋아하거든요..

영순의 그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곧 그 의미를 깨닫고 쑥쓰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은혜를 쳐다본다. 은혜도 영순을 쳐다본다. 영순 담배를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는다.

S#.3. 방송국 회의실(낮/건물안)

화면에 영순의 얼굴이 정면으로 보인다. 인터뷰장면.

영순: 저 지금 찍고 있는 건가요?(어색하게)
카메라맨: 네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PD: 실례지만 지금 하고계시는 일은?
영순: 얼마전에 중사제대하고 지금 구직활동중입니다.
PD: 아.. 군에 계셨군요. 얼마나 계셨죠?
영순: 한 6년이요.
PD: 어머님하고 동생분은 어떤 분들이셨죠?
영순: 엄마하고 동생 모두 독실한 기독교였어요. 동생은 모태신앙이었구요.
PD: 그럼 영순씨는요?
영순: 저는...어릴때는 다녔는데 바쁘기도 하고 저하고 좀.. 안맞는거 같아서 한 10년전부터 안다니기 시작했어요.
PD: 가족분들하고의 사이는 어땠나요?
영순: 원래는 괜찮았는데 교회 안다니고 좀 서먹서먹했다가.. 한 8년전부터는 거의 맨날 싸웠죠. 그렇게 계속 싸우다가 입대하고 따로 살게 됐구요.
PD: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왜 다투고 집을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영순:.... 제 사생활에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서 좀 간섭이 심했거든요.
PD: 사생활이라 하시면 어떤?...
영순:.... 그냥 제 사생활이요...

(플래쉬백)(무음) 영순과 은혜가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영순은 사랑스런

눈으로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역시 영순을 같은 눈으로 바라본다.

영순: 그러니까 친구나 인간관... 저 근데 그런것까지 말씀드려야하나요?
PD: 어머님과 동생분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다녔던 교회는 어땠나요?
영순: 그냥 평범한 교회였어요. 동네 어디에나 있는...
PD: 그 교회에서는 이상한 점 없었나요? 이상한 행위를 요구한다던가... 목사가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한다던가..
영순: 아니요 전혀요. 목사님도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데요. 교회안다니기 시작해도 가끔 연락드렸는데 항상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저 군입대 조언해주신 분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동생이 사이비에 빠진거 알려주신 분도 그분이세요.
PD: 가족분들이 왜 사이비에 빠졌는지 짐작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플래쉬백)(무음) 영순이 급하게 계단을 뛰어서 올라간다. 굳은 표정으로 급하게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간다. 방안의 광경을 보는 영순의 표정이 경악과 분노로 가득찬다. 방안은 난장판이 되어있고 구석에서는 은혜가 뒤돌아 충격받은 표정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엄마와 동생이 무릎꿇고 앉아 한손에는 십자가와 다른 손에는 성경을 들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분노한 영순이 강제로 엄마와 동생을 집밖으로 끌어낸다. 은혜는 귀를 막고 울음을 터뜨린다.

영순: .....(굳은 표정으로 답답하다는 듯이 머리를 뒤로 넘기며 한숨을 쉰다) 글쎄요 뭐.. 원래 독실한 신자였고... 원채 순진하고 잘 속는 사람들이라서.. (눈길을 자꾸 회피하며 뭔가를 숨기는 듯이)

방송국 사무실 회의실 피디와 여러명의 직원들이 모여있다. 맨앞에는 프로젝트로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 그 화면에는 십여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찍혀있다.

PD: 처음 시작이 2010년이었죠. 교회 이름이 반석교회라는 곳이었는데 이형진이라는 사람이 신학대 졸업 후에 시골 작은 마을로 내려와서 지은 개척교회였습니다.

영순이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다. 손에는 A4용지로 된 두툼한 자료들이

들려있다. PPT와 자료를 번갈아 보는 영순.

PD: 이형진 목사는 자금난으로 3년도 지나지 않아 결국 파산하고 맙니다. 그후에 방황하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2년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전에 다시 마을로 돌아와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는 몇년 되지도 않아 교세를 확장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신도들을 대거 받아들여 지금 이 마을은 신의 마을로 불리는 하나의 종교적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형진씨는 지금 부목사로 있고 총제로 불리는 총재는 따로 있지요.

PD가 화면을 넘기며 브리핑을 계속하고 영순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바라본다. 다음장으로 넘어간 PPT에는 여러명의 얼굴들이 있다.

PD: 자 이 얼굴들을 잘 봐주세요. 외부활동중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먼저 여기 이 여자부터 보시죠. 김미진, 30세 초반 신도들로부터는 김실장이나 김비서라고 불리는것 같더군요. 사기전과 2범의 전과자입니다. 박태수 40대 중반 일명 박집사. 역시 사기전과 1범입니다. 나머지 집사나 간부들 역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겠죠. 자 이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는지 한번 보시죠.

다음화면으로 넘어간다.

PD: 3년전쯤 이형진 목사 명의로 식품회사를 차립니다. 신의마을이라는 회사인데 이 마을에서 운영되는 밭에서 나오는 채소류와 목장에서 나오는 산양유를 팔고 있지요.

영순: 산양유요?

PD: (OFF) 네 산양유입니다. 이 목장에서는 염소를 키우고 있어요 거기서 산양유를 짜서 팔고 있지요.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력은 모두 신도들을 무급으로 동원하고 있구요. 또 문제가 뭐냐면 채소든 산양유든 무슨 성령의 힘으로 키운것이네 뭐네 하면서 말도안되는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도들이 목장에서 염소를 키우는 장면과 밭에서 일하는 장면이 보인다. 즐거워 보인다기 보다는 무표정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다.

PD: 그리고 총재가 직접 만들었다는 생명의 목걸이니 성령의 팔찌니 싸구려 공산품을 기적의 아이템으로 둔갑시켜서 비싼 가격에 팔고 있죠. 자 보시죠 (피디가 목걸이를 보여주며)
이딴거 하나에 십만원입니다.

영순이 한심한 표정으로 그 목걸이를 바라본다.

PD: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명의는 이형진 목사로 되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모든 재산의 소유는 총제라 불리는 총재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재의 얼굴이 공개된 사진이 없다는 것이에요. 단 한장만 빼구요. 여기 멀리서 찍힌 이 남자가 바로 총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자 이 사진을 보시죠. 우리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김영희 박태수 일당과 항상 같이 행동했던 중년남자가 있습니다. 조용덕 60세 사기전과 7범. 우리는 이 사람이 총재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확신하고 있구요. 현재 조양덕씨는 소재 파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순: 그래서 제가 할일이란게 무엇인가요?
PD: 지금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약 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영순씨의 가족까지 포함해서요. 다 그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영순 그 말에 표정이 더 굳어진다.

PD: 저희가 총재를 비롯한 간부들 정체만 밝혀낼 수 있다면 그 사이비 단체 무너뜨리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그 사람들 다 구할 수 있다구요. 영순씨만 도와주시면요. 지금까지 그 단체에 잠입취재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가는게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니에요. 헌데 영순씨는 성공했습니다. 저희 취재원들이 다 실패한 일을 영순씨만 성공했어요... 입소일이 언제죠? 언제 들어갈거라고 하던가요?
영순: (한숨을 쉬며)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이번주 내로 데리러 갈테니까 준비만 하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뭘 해드려야 하죠?
PD: 총재 정체를 밝혀낼 사진자료. 추가로 혹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증거자료입니다. 특히 총재 얼굴이 똑바로 나온 사진이면 아주 좋겠지만 혹시 조용덕이 성형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총재가 조용덕이라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잘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영순의 표정에 의지가 보인다

스탭: 자 이건 연필처럼 보이지만 작은 카메라 입니다. 여기 이걸 보시면..

스탭들이 작은 촬영장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스탭: 이건 비상용 핸드폰입니다.

폴더폰을 준다. 돌아가는 길 복도에서 스탭이 돌아가려는 영순을 몰래 불러서 말한다.

스탭: 저 영순씨 이번일.. 내키지 않는다면 안하셔도 되요. 솔직히 가서 무슨일이 있을지도 모르고..그리고 저 피디란 사람 말은 거창하게 해도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영순: 네? 그게 무슨..
스탭: 글쎄 뭐 자세히 말씀은 못드리지만.. 저 피디 지금 방송국에서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해요.. 사고친것도 있고..

피디가 담배를 피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표정이 멍하면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다.

스탭: (OFF) 그리고 이번일 제대로 못하면 잘릴 수도 있어서 저렇게 영순씨 몰아붙이고 있는 거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안하시는게 좋아요 (피디 역시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

S#.4. 영순이다니던교회집무실 (낮/건물안)

영순이 10년전에 다니다가 그만둔 교회로 찾아온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목사님이 반갑게 맞이해준다.

목사님: 그래 영순아 어서와라.. 야 전역하더니 정말 멋진 숙녀가 되었구나..
영순: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cut to)
목사님: ...정말 거기 가겠다고? 괜찮겠니?
영순: 어쩔수 없잖아요... 더이상 내버려둘수도 없고...
목사님: 네가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아가씨는... 네가 가도 괜찮다고 했어?
영순:...아니요 그런건 아닌데... 가족일이니까.. 어쩔수 없잖아요. 결국 이해해줄거에요.
목사님: 솔직히 난 잘 모르겠구나... 물론 가족문제이긴 하지만 안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네가 거기에 들어가겠다는게..
영순: 엄마하고 동생만 찾으면 바로 나올거에요. 혹시 같이 나오진 못하더라고 일단 거기에 있기나 한건지 살아는 있는건지라도 알아야죠.
목사님: 내가 걱정되는것은... 물론 어머님과 수진이도 걱정되긴 하지만.. 너도 걱정이 된단다.
영순: 제가요? 저는 괜찮을거에요.
목사님: 악인의 길은 캄캄한 어두움과 같아서 그들이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잠언 4장19절 말씀이란다. 이단에 눈이 멀은 자들은 자신이 악인지 조차.. 본인들이 어둠속에 있다는 것도 모른단다. 그런 그곳에 네가 들어간다면 어둠속으로 빠져드는 반딧불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게 두렵구나..
영순: 무슨말씀이세요?
목사님: 나도 잘은 모르지만... 그냥 예감이 좋지가 않다. 다시한번 생각해줄수는 없겠니?

영순 그말에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S#.5. 영순의 집 (밤/건물안)

영순이 집에 조용히 들어온다. 불은 꺼져있고 은혜는 뒤돌아 누워있다. 영순은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한다. 그때 은혜가 뒤돌은채로 말한다.

은혜: 진짜 갈거야?
영순:...가족이잖아..
은혜: 그럼 나는?
영순: ...

은혜... 그럼 우리는?
영순: 금방 갔다올게... 갔다와서 다시 얘기하자...

은혜 일어나서 영순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은혜: 왜 대답안해..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
영순: 중요해.. 중요하지... 그런데 나한테는 가족도 중요해...
은혜: 나한테는 무엇보다 우리가 더 중요해...

영순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듯이 일어서서 짐을 들고 나가려고 한다.

은혜: 너 지금 나가면 우리 정말 끝이야

영순 잠시 망설이다가 어쩔수 없다는 듯 나간다. 밖으로 나온 골목길에서 담배에 불을 붙인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말없이 쳐다본다.

S#.6. 신앙촌정문(낮/건물밖)

신앙촌으로 가는 봉고차. 창밖을 바라보는 영순의 모습
게이트에 들어서는 순간 추운 겨울에 핀 꽃을 본다. 한동안 그것을 기묘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영순 (여기서부터 현실이 붕괴됨을 암시)

영순 공동체에 입소하다. 숙소로 올라가는 길에 표지판이 있다. 표지판에는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이라고 써있다. 그걸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영순

S#.7. 총재사무실(낮/건물안)

총재가 사무실에서 매우 진지한 얼굴로 생명책을 쓰고 있다. 그때 비서가 들어온다.

총재: (근엄한 표정으로) 지금 생명책을 집필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김비서: (당황하며) 아 죄송합니다.
총재: 아 아닙니다. 안그래도 쉬려고 했으니 들어오세요.

총재의 집무실에서 김비서와 부목사가 함께 앉아있다. 김비서는 각종 서류를 들고 뭔가를 읽고 있고 부목사는 총재와 김비서에게 차를 타주고 있다.

김비서: ... 그래서 이번달 결산 말입니다만 항상 총재님 지시하신대로 전액 현금으로 준비해두었습니다. 여기 장부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김비서 두툼한 현금봉투와 장부를 테이블 위에 놔둔다.)
총재: ...그래요(무관심한 톤으로)
부목사: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김사장 말인데요 다음 예배시간에 한번 오시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분이 사업하셔서 그런지 한번 잘 보이면 기부금도 통크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우리 총재님 한번 소개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려놨으니 곧 약속 잡겠습니다. 어떠신지?
총재:...그래요(똑같이 무관심한 톤으로)

(총재가 의자에 앉아있는 장면 등에 날개가 달려있는것처럼 보이게 묘사)
총재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간다. 창문밖에는 새로운 신도들이 걸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영순이 있다.

총재: 돈은 거기 놓고 두분은 이만 볼일들 보시게..

S#.8. 교회 오리엔테이션룸(낮/건물안)

영순 건물로 들어간다. 건물 입구에는 영어로 Welcome to the Happiest World!(가장 행복한 세계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써있다.

김비서가 신입들을 모아놓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다.

김비서: 저희 신앙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간사이자 총재님 비서로 일하고 있는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공동체 생활을 원만히 하실 수 있도록 돕는게 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에 입소하는 순간부터 밖에서 어떤 생활을 하셨던 상관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지내게 될것입니다. 물론 형제자매님들도 이 공동체의 규칙에 따라주셔야 하구요.

자 이제 우리 공동체의 규칙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비서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주며) 먼저 핸드폰은 모두 반납입니다. 저희 공동체의 원칙은 사악한 외부세력에 의해 여러분의 고귀한 영혼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은 바깥세상에 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OFF) 둘째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저희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모든 신도님들은 아침5시에 일어나 예배당에 모여 아침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침식사 후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각자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노동을 통해 본인의 역할을 다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딸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로 기도를 하는 모습, 그리고 일과시간에는 청소를 하는 신도, 못질을 하며 시설관리를 하는 신도, 밥을 짓는 신도, 밭에서 일하는 신도등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순간 방문이 열리더니 총재가 문워크로 장난스럽게 들어온다. 일동 순간 황당한 표정으로 침묵하면서 쳐다본다. 문워크로 방 중앙으로 온 총재가 한바퀴 돌더니 장난스런 표정으로 신입들을 바라본다.

총재: (호탕하게 웃으며)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책임자이자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이끄는 인도자입니다. 보통은 그냥 총재라고 불리고 있지요. 제가 원래 장난을 좋아하는 성격이기도하고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도 좀 풀고자 간단한 춤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해봤습니다.

신입들 반갑게 웃으며 화답하고 영순도 어색한 미소로 바라본다.

총재: (살갑게 웃으며) 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비서가 안내해줄겁니다. 아 그러고보니 내일이네요? 우리 신앙촌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사중 하나가요.
김비서: 아 네.. 강강수월래 말씀이시죠?
영순:(혼잣말로) 강... 강강수월래?
총재: 그렇죠 이번에 새로오신 분들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건

여러분들이 이 신앙촌에서 맞이할 하루하루는... (총재의 눈이 영순을 쳐다본다) 정말 즐겁고..(영순얼굴 클로즈업) 재미있는..(다시 총재얼굴 클로즈업) 시간이 될것입니다. (총재 뭔가 음흉한 느낌이 드는 미소)

S#.9. 교회운동장(아침/밖)

넓은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인다. 여자는 왼쪽에서 남자는 오른쪽에서 들어온다.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로봇처럼 딱딱하게 줄을 딱 맞춰서 아주 조용히 이동한다.
영순은 어색하게 사람들을따라 움직이지만 뭔가 영순혼자 그 무리에서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인다. 영순은 조용히 눈을 굴려 왼쪽과 오른쪽을 바라본다. 다들 무표정하고 건조한 느낌이다.

남집사: 자 오늘 새로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영생체조에 대해서 다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발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동작이 적응이 되면 나중에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되며 영생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부가 동작을 알려주는데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 그런데 모두들 진지하게 따라한다. 영순의 표정은 매우 당황스러워하지만 의심받지 않기 위해 일단 따라하는데 대단히 어색해보인다. 보기에도 우스운 그 모습들을 총재가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웃음을 가까스로 참는듯한 표정이다.

S#.10. 화장실 (밤/실내)

김비서가 화장실에 앉아있다. 눈을 꼭 감았다가 뜬다. 김비서의 손에는 임신테스트기가 들려있다. 명확히 보이는 빨간색 두줄을 확인한 김비서. 김비서의 표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한숨을 쉬는 김비서. 밖으로 나와 부목사가 있는 곳으로 간다. 벤치에 앉아있는 부목사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김비서는 약간 떨어져서 부목사를 미묘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부목사: 아 사장님 네. 저희 총재님하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조만간 한번 보자고 하시네요. 아 그럼요. 우리 총재님 축복한번이면 사업이든 집안이든 만사형통 아닙니까. 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아 다만 우리 총재님 섭섭하시지 않게 정성을 들여서 좀 준비해주시면 총재님도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네 물론이죠. 아 그럼 조만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넵~

부목사 전화를 끊고 김비서를 쳐다본다.

부목사: (장난스럽게) 우리 섹쉬한 김비서님.. 거기서 뭐하세요?
김비서: ...
부목사: 미진아 왜그래?
김비서: 아니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그 사장이란 사람?
부목사: 응 야 이번에 잘하면 큰거 뜯어낼수 있겠다.
김비서: 목사라는 사람이 잘하는 짓이다.
부목사: 아 왜? .. 야 그러고보니 너 이따 전도 나가지?
김비서: 응 그런데?
부목사: 나 담배 떨어졌어 담배 한보루만 사다줘. 아 씨 몰래 피는것도 죽겠다.

부목사의 말에 김비서가 한숨을 쉬며 짜증난다는 듯이 말했다.

김비서: 니가 알아서 사다피고 너 앞으로 내앞에서 담배피지마
부목사: 뭔소리야 그건또 갑자기 왜?
김비서: 아니 너 그냥 담배 끊어.. 안끊으면 내손에 죽는다

김비서는 짜증을 내며 자리를 뜨고 부목사는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본다.

S#.10. 모닥불(밤/밖)

밤에 모닥불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여자들은 모닥불가까이 원형으로 앉아있고 안쪽 남자들은 바깥쪽으로 떨어져서 아무렇게나 서있다.

총재: 오늘은 신나고 흥겨운 강강수월래를 하기 앞서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 하나님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아 우리 장말순 자매님하고 최서영 자매님 먼저 나와서 말씀해보시죠.

장말순 최서영 어색하게 나온다.

장말순: (의아하다는 듯이) 에..저는 최근에... 크게 죄를 지은일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최서영: 저도요
총재: 괜찮습니다. 큰죄를 말하는게 아니에요. 사소한 죄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죄사함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장말순: 하지만... 정말로..
총재: ...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그분에게 받은 수많은 권능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눈만 보면 거짓말을 하는지 안하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자 다시한번 물어보죠. 지난주에 뭘 잘못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장말순: (눈치를 보며).. 전도시간에 시내에서 햄버거를 하나 사먹었습니다.
총재: 혼자였나요?
장말순: 아니요 제 딸도 함께였습니다.
총재: 그럼 싸가지고 간 도시락은 버리셨나요
장말순: ....죄송합니다. 목사님
총재: 여러분.... (갑자기 큰소리로)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했듯이 햄버거는 악마의 음식입니다. 오직 이 신앙촌나오는 성령의 힘으로 만들어진 음식만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장말순, 최서영: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총재: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회개의 시간을 가집시다. 두분은 이리와서 서로를 바라보세요.

햄버거 모녀 마주 앉는다.

총재: 두분이 회개하고자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 뺨을 때리세요.

영순 어이가 없다는 눈으로 총재를 쳐다본다. 햄버거 모녀는 망설이고 있는데 딸이 결심했다는 듯이 엄마의 뺨을 큰소리나게 후려친다. 엄마는 당황하다가 바로 딸의 뺨을 친다. 그렇게 서로 얼굴이 벌개질때까지 뺨을 친다. 뺨을 칠수록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이 고조된다. 총재는 서로의 뺨을 때리는 모녀위로 양손을 들어 의식을 거행하는 듯한 손짓을 한다. 총재의 손짓에 맞추어 익숙한듯 모닥불을 둘러싼 여성들이 조용히 일어나 서로 손을 맞잡고 천천히 모닥불을 돌며 춤을 춘다. 점점 움직임이 빨라지고 동작도 흥겹게 변한다. 그 모습에 영순은 갑자기 토할것 처럼 속이 미식거리기 시작한다.

총재: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우리..

그때 약골남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 옆에 있던 여성이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 당황하지 않고 남성을 똑바로 눞힌다.

총재: (짜증을 내며) 무슨일인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벤트인데...
여성: 죄.. 죄송합니다. 원래 간질증세가 있던 사람입니다.
총재: (혀를 쯧 차며) 그래요? 어서 방으로 옮기세요 그럼..

전혀 무관심한 표정으로 뒤돌아가려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난듯 다시 돌아와 외친다.

총재: 전파공격이다! 전파공격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주변을 뛰어다닌다.

여성: 저 총재님 그게 아니고 이분은 원래 간질증세가...
총재: 그걸 어떻게 알죠? 원래 전파공격은 이 머리! 머리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 간질증세가 전파공격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앞에 확실히 말씀드리실수 있는건가요?
여성: 저.. 그건...
총재: 그런 안일한 믿음이 이 분의 병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겠나요? 지금

우리의 공동체가 전파공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겁먹고 술렁이기 시작한다. 영순은 황당한 표정으로 그것을 보고있다.

총재: 자 어서! 건물로 대피! 대피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총재의 지시를 따라 건물로 서둘러 이동한다.

S#.11 거리(낮/야외)

(플래쉬백) 머리를 산발한 중년의 남자, 집사가 되기 이전의 남집사가 자신의 방을 보고있다. 방은 완전히 난장판이다. 방에 약봉투가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있다. 대충 옷을 걸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칼을 들고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다시 나간다. 길거리를 멍한 표정으로 걸어간다.

환청: 야이 씨발놈아!

어디선가 들리는 욕설에 주위를 둘러본다. 살기어린 눈으로 욕설이 들리는 곳을 찾아보았으나 아무도 없다. 다시 뒤돌아 갈길을 간다.

환청: 야이 씨발놈아!

다시 뒤돌아 본다. 하지만 아무도 없다. 자신의 머리를 마구 때리는 남집사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길거리를 걷는다. 남집사옆으로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 몇몇이 지나간다.

???: 야이 씨발놈아!(총재목소리로)

잽싸게 뒤돌아보는 남집사 그때 자신을 쳐다보던 남자와 눈이 마주친다. 남집사 그 남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다.

남집사: 너지? 니가 욕한거지?
남자:(매우 당황해하며) 뭔 개소리야? 당신 미쳤어? 이거 안놔?

몸다툼을 하는 그 둘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몇몇은 말리려고 하고 몇몇은 그냥 구경한다. 그때 남자가 남집사를 땅바닥으로 밀쳐내고 남집사는 바닥에 넘어진다.

남자: 이거 미친놈 아냐?
주변사람: 무슨일이에요?
남자: 아니 이 미친놈이 다짜고짜 나한테 달려들잖아요 무슨 욕을 했다고 갑자기..

그때 주위에서 어? 어? 저거 칼아냐? 하는 소리가 들린다.

남집사: 너 이 개새끼 내가 죽일테다!

남집사의 위협에 남자는 겁을 먹은 듯이 말한다.

남자: 뭐...뭐야 진정해요! 나는 욕한적 없다니까!!
남집사: 이야!!!

남집사 고함을 지르며 남자에게 칼을 들고 달려간다.

(현재)(Cut to) 깔끔하게 머리를 자른 모습의 남집사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한다. 방에는 총재의 사진이 걸려있다. 남집사는 방바닥에 방석에 앉아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

S#.12 숙소 (밤/건물안)

화면에 강강수월래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기괴한 표정으로 소름끼치게 웃으면서 강강수월래를 한다. 그 뒤로 영순엄마의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마치

시체같은 무표정에 얼굴도 매우 창백하다. 손을 기괴하게 흔들어대는 모습. 은혜의 뒷모습이 보인다. 영순은 손을 뻗어 잡으려고 한다. 바닥에 피가 흐른다. 갑자기 얼굴에 피칠갑을 한 총재의 얼굴이 보인다. 영순 헉소리와 함께 잠에서 깬다.

S#.13 예배당(낮/건물안)

다음날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있고 총재는 비장한 표정으로 박스를 꺼낸다.

총재: 어젯밤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려는 사단 세력의 전파공격이 있고나서 제가 밤새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드디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박스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그것은 호일로 대충 만든 모자이다.(총재것만 반드시 뿔이 두개 있어야함)

총재: 이 호일이 뭘로 만들어졌죠?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은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이건 이미 과학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자 제가 만든 이 모자만 있으면 바로 전파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사람들이 모두 미리 준비한 쿠킹호일로 모자를 만들어 머리에 쓴다. 영순의 표정은 이제 당황함을 넘어서 황당하다는 표정이지만 억지로 참고 따라한다. 엉터리로 만든 모자가 완성되고 사람들을 모두 머리에 쿠킹호일 모자를 쓴다. 그것을 총재는 가만히 보고있다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으로 찍는다.

총재: 여러분들이 만든 이 모자를 소중히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전파 공격이 있을 시에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테니 집사님들? 다음은 맡아서 해주세요.

총재는 집무실로 간다. 문을 닫자마자 갑자기 참았던 웃음을 폭발하듯 터뜨린다. 배를 잡고 미친 사람처럼 웃는다. 한편 남집사 누구보다 열심히 쿠킹호일 모자를 만들고 있고 김비서는 은근슬쩍 물어본다.

김비서: 남집사님 요즘 약은 잘 챙겨드시고 계시죠?
남집사: 그럼요 잘 챙겨먹고 있습니다.

(플래쉬백 교차편집) 남집사는 약을 화장실 변기에 내린다.

남집사: 처음부터 약 같은 건 필요 없었어 그렇죠? 총재님

남집사 허공에 대고 말을 한다.

S#.14 예배당(밤/건물안)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총재의 설교를 듣고 있다. 바닥에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총재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

총재: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모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속세에서 흔히들 즐기는 성적 유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 오직 쾌락의 도구로서 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총재 그러면서 영순을 힐끔 쳐다본다. 알수 없는 미소를 띄며 말을 계속한다.

총재: 오늘은 그중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동성애 역시 주님께서 아주 혐오하시는 극악무도한 범죄 중 하나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영순 약간 당황한 표정

총재: 자 먼저.. 흠..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 이춘자 자매님?

이춘자신도: 아이구 남자가 남자끼리 막 만지고 그러는거.. 아주 더러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신도: 맞아요 보기에도 역겨워요 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총재: 그렇죠.. 아주 더러운 것들이죠. 정말 역겨운 인간들입니다.

총재의 이야기에 불편한듯 영순 고개를 숙인다.

총재: 동성애자들은 정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버러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조만간 하나님의 세상이 오면 가장먼저 지옥으로 떨어질것들이 그것들이죠. 안그래요? 어디.. 김영순 자매님?

총재의 갑작스런 질문에 영순 놀라며 고개를 든다

영순:..네??

총재: (왠지 능글맞은 표정으로) 동성애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버러지들이죠?

영순:(영순 최대한 자연스럽게)...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재: 자 따라해보세요. 동성애자들은!

영순: 도..동성애자들은

총재: 지옥으로!

영순: 지옥으로..

총재: 더 크게!

영순: 지.. 지옥으로!

총재: 떨어질 버러지들이다!

영순: 떨어질 버러지들이다!

총재: 다시!

영순: 동성애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버러지들이다!!

총재: 더크게!!! 다시!!!

영순: 동성애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버러지들이다!!!

총재: 다같이!! 크게!!

총재의 말에 예배당 모두가 큰소리로 외친다. 모두가 큰소리로 외치는 장면에서 괴로움을 가까스로 참고있는 영순의 표정 클로즈업

S#.15 숙소(밤/건물안)

건강을 숭배하는 자, 매우 마르고 병약해보이는 간질남, 방에서 촛불을 키고 사진은 사진을 보면서 절을 드리고 있다. 근육질의 건강한 보디빌더가 찍혀있다. 입으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다

영순 밤에 숙소에서 몰래 나온다. 뭔가를 찾듯이 그리고 해매다 문을 여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영생체조를 하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듯이 조용해야함)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온 영순을 쳐다보는 사람들 그런데 기계처럼 감정없는 표정으로 영순을 쳐다본다. 영순 놀라서 미안하다는 듯이 고개를 숙인다.
부목사의 방, 김비서는 침대위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고 부목사는 담배를 피고 있다. 둘이 연인사이라는 것을 암시.

김비서: 남집사 또 약 안먹는거 같은데 뭐라고 좀 해봐 지난번처럼 발작 일으켜서 사고치면 곤란하니까
부목사: 그 미친새끼 언젠간 내쫓아버려야 하는데 변태같은 노인네가 그런 미친놈을 왜 받아준건지

(플래쉬백)(무음) 남집사의 피묻은 얼굴이 클로즈업으로 비쳐진다. 표정은 살짝 미소 짓고 있고 눈은 풀려있다. 바닥에는 어떤 남자가 팔을 잡고 쓰러져 있다. 팔에는 피가 솟구치고 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려고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 그 사람들 가운데 총재가 서있다.

김비서: 근데 있잖아... 나는 가끔보면 남집사보다 노인네가 더 미친거 같아.

부목사: 그냥 변태같은 노인네일 뿐이야 저런 사이비들 많아.

(플래쉬백)(무음) 총재가 남집사에게 다가가서 온화한 표정으로 안아준다. 남집사의 얼굴이 부들부들 떨리며 결국 총재의 품에서 오열한다.

부목사가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한다.

부목사: 그보다 알아봤어? 금고 비번 어디다 적어놨는지 봤어?
김비서: 전에 그렇게 말했었어 자기는 머리가 나빠서 컴퓨터에 비번써놓은거 저장해놓고 있다고.. 아마 컴퓨터에 보면 있긴 할거야.. 근데 진짜 그돈 훔칠거야? 오빠도 목사였잖아? 목사가 그래도 돼?
부목사: 그러는 너는 전과 2범 사기꾼이잖아 뭐가 다른데?
김비서: 야 이 씨 너 옛날얘기 하지 말랬지
부목사: 알았어 알았어. 옛날에 내가.. 개척교회 말아먹고 서울로 다시 올라와 여기저기 손벌리고 다닐때.. 대학 동기한테 찾아갔었거든. 그 놈도 목사였어.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 대학생때는 부잣집 아들놈이 사역을 논한다는게 역겨워서 무시하곤 했는데..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가서 비굴하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 놈이 거만한 표정으로 나한테 일장연설을 두시간이나 늘어놓더니 지갑에서 5만원짜리 3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고는 바쁘니까 가보라고 하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는 나에게 그놈이 이러더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그게 현실이야 전부를 걸고 시골에 가서 개척교회하다가 실패한 나는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목사부모한테 교회 통째로 물려받아 부자들 상대로 목사하는 그놈은 참된 목사,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었지. 그렇게 5만원짜리 3장을 꼭 쥐고 나와서 한강대교를 건너면서.. 깨달은바가 있지.. (5만원 지폐한장을 쫙 피며) 앞으로 나에게는 이게 예수이자 부처이자 알라신이다

S#.16 총재실(밤/건물안)

영순 총재의 집무실에 잠입. 이것 저것 뒤지면서 사진도 찍고 서랍을 여는데 여성 브레이지어가 한가득 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영순. 그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다. 그때 영순의 눈에 생명책이 들어온다. 그것을 집어 펼쳐보려는 그때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린다. 뒤에는 햄버거를 우걱우걱 먹고 있는 총재가 서있다.

총재: 자매님께서는 이 야심한 시간에 무슨닐로 이 집무실까지 찾아오셨는지?
영순: … 아… 저 방을 잘못 찾아서요. 죄송합니다.

총재 막아서며

총재: (햄버거를 한입 더 먹으며) 뭘 찾으려고 오신거 같은데…

영순 매우 당황해한다.

영순: 아니에요 아닙니다.
총재: 아까 사진기로 뭘 막 찍는거 같은데..
영순: …
총재: 방송국에서 오신 분인가?
영순: … 그렇다고 하면 어쩌실 건데요?
총재: 방송국에 취재나올만한 일을 한 기억이 없는데..

영순 당황하면서도 기죽지 않는다는 듯이

영순: 당신 누군지 알아.. 당신 부하들도 다 사기꾼인거.. 증거도 다 있어.
총재: (다소 비웃는듯이) 허허.. 내가 누군지 안다고? 그래.. 내 이름을 알면 한번 말해보시게..
영순: …당신 조용덕이잖아.. 전과 7범의 사기꾼..그리고 다른 간부들도 사기꾼들이고.. 여기 사람들이 그걸 알면 어떻게 될까? 증거도 있고.. 방송국에서도 벼르고 있어.

총재 여전히 얼굴에 여유로운 미소를 띄고 있다.

총재:… 흠…. 조용덕이라.. 거기까지 알고 있었어? 이것 참 곤란하게 됐구만
영순: 하지만… 내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방송국에서도 방법이 없을 것이고 당신의 왕국도 무사하겠지.. 안그래? 내가 원하는 것만 넘겨주면 말이야..

총재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매우 여유롭다는 듯이

총재: 오 그래? 원하는게 뭔데?
영순: ... 우리 엄마.. 내 동생! 어디있어? 여기서 데리고 나가게만 해줘 그럼... 증거고 뭐고 여기서 찍은 것들 다 넘겨줄게. 당신에게는 신도 두명 보내주는거 어려운일 아니잖아.
총재: ...그게 원하는건가? 그럼 그냥 말을 하지.. 사람들 참.. 그냥 말을 하면 될 것을 꼭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 내가 당신 어머니하고 그.. 동생이라 그랬나 아무튼 그사람들 어디있는지 알려주면 어떻게 할건데?
영순: 말했잖아.. 여기서 데리고 나갈거야
총재: 크흐흐흐 아니 이보게 젊은 친구 며칠 여기 있으면서 대체 뭘 본건가? 그사람들이 얌전히 자네를 따라갈지는 어떻게 알고.. (표정이 싸늘하게 변한다) 여기서 얌전히 나가게 해줄지는 어떻게 아는가?

여기서부터 점차 긴장이 고조되는 식으로 연출 영순 긴장된 표정, 총재 다시 여유로우면서 약간 장난기 있는 표정으로 바뀐다.

총재: 그보다 말이야.. 내가 아주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거든..흠..
영순....?

총재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들릴듯 말듯한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린다.

영순: 이봐요 조용덕씨 내가 하는 말 들어요. 아무도 피해보지 않고 끝낼수 있어..지금 방송국 사람들이..

총재 갑자기 영순 쪽으로 다가온다. 영순 갑자기 총재가 다가오자 놀라며 뒷걸음친다.

영순: 저기 가까이 오지말고! 가까이 오지말고! 뭐하는 거에요 지금!?

총재 듣지도 않고 서랍으로 가서 뭔가를 찾는다.

총재: 에이 씨...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영순: (너무 긴장해서 일단 한숨을 쉬며) 아이 씨발 지금 뭐하는 거야? 저기요 사람말을 좀 들으라고요.

총재 물건을 찾았다는 듯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 그리고 뒤돌아서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영순을 쳐다본다. 표정에는 뭔가 섬찟함이 느껴진다.

영순: 자 다시 말할게요. 우리 엄마하고 내동생만 데려다주면 내가..

총재 정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칼로 자신의 목을 찌른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친다. 그러면서 표정하나 변함없이 한손으로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칼을 든채 영순에게 걸어온다. 그리고 영순의 발앞에 칼을 던진다. 그리고 힘없이 바닥에 쓰러진다.

총재: 두고.. 보라고... 진짜... 재미있는... 것은.. 지금...부터...야..

카메라 총재의 시체를 보여주다가 돌면서 피가 묻은 방을 천천히 보여주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영순의 풀샷에서 얼굴 클로즈업 피묻은 얼굴과 함께 경악스런 표정으로 떨고 있는 영순.(긴박감 넘치는 음악)

에피소드1 종료

엑소더스

에피소드 2

S#.1. 시골집 (낮/야외)

모텔 앞에서 부목사가 담배를 피고 있다. 모텔건물을 보고 한숨을 한번 쉰다음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들어간다. 모텔방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니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중 40대정도 되어보이는 사람이 어색하게 미소지으며 부목사에게 묻는다.

박태수: 이형진씨? 전화로 통화했던 박태수입니다.
부목사: 네 제가 이형진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박태수: 서류는 가져왔어요?
부목사: 네 여기.. 저 근데 왜 하필 약속장소를 모텔방으로 잡으셨어요?
박태수: 사이비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낼일 있나요? 여기 사장하고 아는사이에요

박태수가 형진이 가져온 서류를 훑어본다.

박태수: 신학대 졸업하고 나름 대형교회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목사안수도 받았고.. 이정도면 괜찮네요... 저희랑 같이 일하는거 괜찮아요? 아니 내가 확실하게 다시 물어보려고...나중에 딴소리 하면 곤란하니까..
부목사: ....네 뭐... 괜찮습니다.
박태수: 지금 빚이 얼마라고 했죠?

부목사가 그 말에 한숨을 쉬고 대답한다.

부목사:... 2억정도 됩니다.
박태수: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죠.. 2억이면.. 보통 큰빚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일해서는 남은평생 일해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돈이죠 그렇죠?
부목사: 압니다.
박태수: 딱 5년만 같이 합시다. 5년이면 빚다 갚고 목돈도 챙겨갈 수 있을거고...이 사이비라는게 처음에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파도타면 돈을 바가지로 긁어 모으는거는 뭐 누워서 떡먹기보다도 쉬운일이니까요..

그때 모텔방 문이 열리고 한명의 여성이 들어온다. 김비서가 되기전의 김미진이다.

김비서: 오빠들~ 벌써 다 모였네
박태수: 야 넌 진짜 시간약속 똑바로 안지킬래?
김비서: 아이 미안~ 응? 여기 이 잘생긴 오빠는 누구?
박태수: 야 인사해 우리랑 같이 일하게 될 목사님이셔
김비서: 아~ 목사님이셨구나.. 목사님 반가워요! 저 김미진이에요.
박태수: 전과2범 김미진이에요
김비서: (박태수를 째려보며) 죽는다.
박태수: 아니 뭐 틀린말 했나..

부목사 갑자기 화기애애해진 분위기에 어색해하면서 김미진을 힐끔 보며 말한다.

부목사: 이형진이라고 합니다.

김비서 웃으며 이형진에게 악수를 청한다. 형진 피식 웃으며 손을 잡고 악수를 한다.

S#.2. 예배당 (낮/실내)

부목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지만 예배당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서로 잡담이나 하거나 졸고 있다.

부목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영감님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있다.

부목사:.... 집안에 우환이 있으신 분들은 위대한 성령의 힘으로....

할머니가 졸고 있고 그 뒤로는 아줌마들이 모여 웃고 떠들고 있다. 부목사 더이상 못견디겠다는 듯 설교하다말고 퇴장한다. 무대뒤에서 박태수가 이목사를 막는다.

박태수: 어어 이목사 왜그래요?
부목사: 왜그러냐구요? 뭐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거라고? 벌써 몇달째 이꼴이잖아요? 내가 말했죠? 요즘 사람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나 안할거니까 그냥 다른사람 알아보세요.

박태수 부목사를 잡고 설득하려고 한다.

박태수: 아 목사님 잠깐만 잠깐만 좀 기다려봐요.. 이게 원래 이런거라니까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부목사: 뭘 조금만 더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아요. 수고들 하세요.

부목사, 태수의 팔을 뿌리치고 나간다. 건물 밖에서 답답한 마음에 담배를 피려는 부목사. 담배를 입에 물었는데 라이터가 없어서 주머니를 뒤지는데도 나오지 않는다. 그때 옆에서 불을 붙여주는 김비서.

부목사: ....고마워요 미진씨.

부목사 멋적은 얼굴로 고맙다고 하고 담배를 핀다.

김비서: 목사님 이거 그만두시면 어디 갈거에요? 뭐 생각하신거라도 있어요?
부목사: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김비서: 그럼 뭐라고 불러요?

부목사: 몰라요. 뭐 그냥.. 형진씨라고 부르든가.
김비서: 아님... 오빠?

부목사 오빠라는 말에 피식 웃는다. 피식웃는 부목사를 보고 김비서도 피식 웃는다.

S#.3. 시골집 (낮/야외)

부목사의 절박한 얼굴이 보인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시골마을 작은 집 마당에는 아줌마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고 있다.

부목사: 저.. 어머님들? 교회한번 나와보실 생각 없으세요?

간절한 부목사의 말에도 아줌마들은 대꾸도 없이 고스톱치기 바쁘다. 부목사는 계속 눈치를 보다가 나온다. 부목사는 터벅터벅 걷다가 동네 의자에 앉는다. 얼굴에는 짜증과 절망이 엿보인다. 머리를 긁적이며 혼자 중얼거린다.

부목사: 뭐? 사이비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돈을 바가지로 긁어모은다고? 그딴 새끼들 말을 믿은 내가 미친놈이지...

부목사 잠시 앉아있다가 차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난다. 계속 터벅터벅 걷는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난다. 분명 가까이에 차를 주차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길도 잃은듯 하다.

부목사: 뭐야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 여긴 또 어디야? 이런곳이 주변에 있던가?

부목사가 주위를 둘러보니 넓디넓은 흙밭이 펼쳐져있다. 부목사가 당황해한다. 그때 뭔가를 발견한듯 눈을 찡그리며 먼곳을 보는 부목사. 저 멀리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면서 달려온다. 부목사에게 다가온 그는 거지꼴을 하고 있는 노숙자처럼 보이는 노인이었다. 노인은 차림새하고는 상관없이 매우 밝은 미소로 부목사에게 물어본다.

노인: 안녕하세요?
부목사: (약간 경계하며)... 저요?

노인: 네.
부목사: ...안녕하세요
노인: 제가 길을 잃어가지고 여기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지 않은가요? 반석교회라고...
부목사: ...네 있죠. 사실 제가 거기 목사인데..
노인: 아 그래요? 제가 거기를 꼭 가고싶거든요. 제가 가도 될까요?

부목사 잠깐 고민하다가 밝은 미소로 노인에게 화답한다.

부목사: 아 그럼요! 저와 함께 가시죠.
노인:(정말 기쁘다는듯이)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가도 될까요? 저를 지금 초대해주시는거죠?
부목사: 네 저희 교회에 와주세요. 환영합니다.
노인: 아이구 정말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에요. 제가 이래봬도 제주가 아주 많은 사람이거든요.
부목사: 아 정말이요? 뭘 할줄 아시는지?.. 자격증이라든가..

노인 뭔가 알수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노인의 얼굴클로즈업.

노인: 다른거보다 우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잘한답니다.. 제가 가면 매일매일이 정말 즐거운 나날이 될거에요..기대하셔도 됩니다.

S#.4. 교회 집무실 (밤/실내)

마지막씬에서 바로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교주의 얼굴로 화면전환. 그 위로 영순의 충격을 받은 얼굴이 보인다. 영순 떨리는 몸을 추스르고 뒤돌아 문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신도들의 제정신이 아닌듯한 무미건조한 표정이 떠오른다. 영순 조용히 문고리를 놓는다. 총재의 시체 옆으로 간다. 시체를 힐끗보더니 바로 눈을 피해 돌려버린다. 총재의 시체를 넘어가는 영순.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연다 일단 뭐든 다 꺼낸다. 서랍에서 열쇠꾸러미가 보여 그걸 챙긴다. 또 거기에 생명책이 있다. 그런데 책이 자물쇠로 잠겨있다. 그때 저쪽 구석에 가방이 보인다. 가방을 가져와 뭐든 닥치는대로 넣는다. 생명책이고 서류고 다 넣는다. 컴퓨터는 조심히 내부를 열어 하드디스크를 분리해서 하드만 넣는다.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난다. 영순은 급하게 문을 잠근다.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신도: 총재님?

영순 입을 막고 가만히 있는다. 그때 밖에 있는 신도가 문을 다시 두드린다.

신도: 총재님? 저 부르셔서 왔는데요...

영순은 조용히 있었고 밖의 신도는 별다른 응답이 없자 그냥 가버린듯 했다. 확실히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영순은 책상을 밀어 문을 막는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나서 주변을 확인한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실히 확인한 영순은 조심스럽게 창문밖으로 나온다.

겨우 건물을 빠져나온 영순 큰 가방을 들고 뛰어가다가 창고를 본다. 창고 구석에 가방을 숨겨놓는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는 영순 자신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는다. 이제야 약간 정신차리는 영순.

영순: 시발 시발 시발 시발

S#.5 총재집무실(밤/실내)

김비서가 빨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몇몇 신도들이 총재의 방안에서 계속 총재를 부르고 있다.

신도: 총재님? 총재님?
김비서: 무슨 일이죠?
신도: 총재님이 안에서 말씀이 없으세요.. 문은 잠겨있고

김비서가 열쇠꾸러미를 가져와 문을 열지만 뭔가 걸려서 잘 열리지 않는다. 힘으로 겨우 밀어서 여는데 총재의 시체를 발견하고 김비서 소리를 지른다. 그 순간 잠을 자고 있던 남집사가 눈을 번쩍 뜬다. 부목사 김비서의 연락을 받고 빨리 뛰어온다. 그리고 총재의 시체를 본다.

부목사: 이런 시발 이거 뭐야..대체 뭔일이 있었던거야?

김비서는 불안하게 부목사를 바라보고 부목사는 총재의 책상을 뒤진다.

부목사: 이런 씨발 서랍부터 컴퓨터까지 몽땅 털어갔네..
김비서: 경찰.. 경찰 불러야돼
부목사: 야 잠깐.. 잠깐만
김비서: 아 왜?
부목사: 돈부터 챙기고
김비서: 이 판국에 무슨 소리야? 오빠 미쳤어?
부목사: 야 생각좀 해봐.. 경찰 오면 여기 싹 다 뒤지고 장부에 서류에 돈까지 몽땅 압수할텐데 그럼 이때까지 개짓거리한 고생이 뭐가 돼? 무조건 돈부터 확보해야돼 그리고 장부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자. 어차피 우리는 살인하고 상관없어 야 생각해봐. 이제 노인네도 죽었으니 그 돈은 붕떠있는 돈이라고.. 왠줄알아?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받았으니까.. 장부만 처리하면 얼마가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 먼저 가져가는 놈이 임자야.. 대충 수습한 다음에 돈챙겨서 멀리 가버리자.
김비서:....
부목사: .. 우리 여기서 나가면 사이비짓거리 다 때려치고 정말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자 아이도 낳고 개도 키우고 멋진 집도 짓고.. 근데 그러려면 그 돈이 있어야 돼..

S#.6 숙소(밤/실내,야외)

자신의 방에서 피디에게 받은 비상용 핸드폰과 간단한 짐 그리고 눈에 보이는 라이터를 하나 챙긴다. 사무실에서 가져온 열쇠꾸러미를 일단 살펴본다. 그중 열쇠하나에 안식의방이라고 써있다. 건물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미는 영순 아무도 없는것을 확인하고 얼른 빠져나가려는데 코너에서 누군가와 부딪힌다.

영순: 아 죄송합니..
동생: 아 뭐에요!... 어.. 언니?
영순: 야 너...

S#.7 총재집무실(밤/실내)

김비서 불안한 표정으로 총재 사무실 앞에서 지켜서있는다. 그때 남집사가 다가온다.

김비서: 남집사님? 무슨일이시죠?
남집사: 총재님을 좀 뵙고싶은데요.
김비서: 총재님은 지금 좀 바쁘셔서.. 내일 다시 오시죠.
남집사: .. 아니요 지금 좀 뵈어야 겠습니다.
김비서: 지금 몸이 좀 안좋으세요 잠시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부목사가 남집사를 부른다.

부목사: 남집사님 잠시만 저좀 보시죠.

부목사는 남집사를 데리고 총재의 방으로 들어간다. 잠시후 방안에서 남집사의 절규가 들린다.

S#.8 신앙촌야외(밤/밖)

동생과 조우한 영순 당장 여기서 나가야한다고 동생을 끌고가려고 하고 동생은 싫다며 맞선다.

영순: 엄마나 너나 정말 제정신이야? 어떻게 믿을게 없어서 이따위 사이비를..
동생: 우리가 정말 왜그러는지 몰라서 물어? 다 언니 때문이잖아!
영순: 내 잘못이라고?
동생: 그래! 언니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성령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영순: 그 얘기 꺼내지마.. 니들이 대체 뭘안다고
동생: ... 그 여자 아직도 만나?
영순: 목사님도 이해해주시는걸 왜 니들은 끝까지 이해못하겠다고 하는건데? 대체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동생: 그 목사는 거짓선지자야! 입발린 소리로 이해해준다고 꼬드기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단이나 마찬가지라고!

영순: 이게 정말!
동생: 왜? 또 때리게? 때려! 때려보라고!
영순: 하.. 됐고 엄마 어딨어?
동생: (고개를 숙이며)....안식의 집
영순: 뭐? 안... 그게 뭐야?

그때 신앙촌내 확성기가 들려온다.

김비서: 여러분 며칠전에 저희 신앙촌에 들어온 김영순씨를 보거나 같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씨는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 신앙촌에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김영순씨를 보거나 위치를 알고계시는 분은 반드시 간부에게 고하시고 지금 같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붙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본부 내 확성기로 영순의 이름이 거론되며 당장 찾으라고 하고 동생은 무슨일이냐고 묻는다. 그때 영순을 알아본 동료들이 다가온다.

동생: 언니 이거 뭐야? 언니 무슨짓 했어?
영순:.. 이런 씨ㅂ... 너 이리와 일단 나가자
동생: 싫어 이거 놔! 언니야말로 무슨짓 했냐고?
영순:... 넌 진짜.. 좀이따 보자..

시간이 없음을 직감한 영순은 일단 자리를 뜨기로 한다.

신도1: 영순씨~

(신도1이 영순씨라고 부르면 뒤에서 다른신도들이 영순씨~라고 똑같은 톤으로 차례대로 부른다) (광신도들의 무서움을 강조) 뒤에서 '뒤에서 영순씨'라고 부르는 소리가 점점 커진다. 그리고 여러 방향에서 점점 다가오기 시작한다. 곧 사방에서 영순씨라는 소리가 들리고 영순의 걸음은 점점 빨라지더니 급기야 전력으로 도망간다. (원컷)

S#.9 신앙촌창고건물(밤/밖)

사람들이 점차 포위하고 있는 것을 알고 다시 건물로 뛰어들어간다. 결국 도망갈곳이 없어 창고로 피신한다. 창고에 사람들이 영순을 포위하고 문짝을 뜯으려고 하는 위기상황. 영순 급하게 피디에게 전화한다.

영순: 시발 빨리좀 받아라
PD: 여보세요? 영순씨?
영순: PD님 나 지금 좆됐으니까 빨리 경찰하고 이리로 좀 와요! 총재가 죽었다니까! 몰라 지가 그냥 내 앞에서 자살해버렸어! 빨리 오라고 지금 나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
PD: 대체 그게 무슨말이에요? 영순씨? 영순씨!!

문짝은 결국 뜯어지고 사람들이 달려와 영순을 붙잡아 통째로 들고 건물밖으로 나온다. 그때 남집사와 눈이 마주치는 영순: 남집사는 당장 영순에게로 다가가는데 그때 부목사와 김비서가 막는다.

부목사: 아 잠깐 잠깐 내가 먼저 얘기를 좀 해봐야 겠어요
남집사: 무슨 얘깁니까? 당장 저년을 잡아다가 거룩한 십자가앞에서 목을 잘라야 합니다.
부목사: (당황하면서) 뭘 목을 잘라요? 아니 일단 뭘 좀 알아내야 겠으니까 잠깐 저쪽 가계세요. 아니 좀.. 내가 할말이 있으니까 일단 저기 가계시라구요. 김비서 좀 이리와봐요 거기 김비서 이리 좀 와보라구요!

부목사와 김비서는 반강제로 남집사를 내보내고 영순을 창고로 다시 데리고 간다. 영순 대충 상황을 눈치채고 남집사가 나가자마자 소리를 지른다.

영순: 야.. .야이 미친놈들아! 니들 나한테 손하나 까딱해봐 니들이 사기친거 자료 내가 다 숨겨놓고 위치 전화로 동료들한테 다 말했어! 나한테 무슨일 생기면 내 동료들이 찾아낼거야! 그럼 니들 다 끝장이야!

부목사 옆에 있는 종이책을 들고 영순의 머리를 쌔게 때린다.

부목사: 끝장은 미친년아 니가 끝장이야 사람죽인 년이 큰소리는!

영순: 시발놈들아 내가 안죽였다고!

부목사가 당장이라도 영순을 더 때릴기세로 말한다.

부목사: 시발년아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 지금 상황이 아주 장난으로 보이냐? 사람이 죽었다고 이여자야! 그리고 너는 사무실에 있는 물건 몽땅 털어서 도망갔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너를 의심하는게 당연한거 아냐? 야 좋아 니가 진짜 죽였든 안죽였든 그런건 내 알바 아냐. 서류하고 하드디스크만 넘겨 니 사람죽인거 내가 어떻게든 덮어줄게.
영순: .....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부목사: 야 너는 지금 니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믿는 모양인데.. 너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랑 거래안하면 너는 살인자로 감방에서 썩든가 아니면 그전에 밖에 저 미친놈들한테 갈갈이 찢겨 죽든가 둘중 하나야.
영순:.....알았어 알았는데 하나만 말해봐..당신이 원하는게 뭐야?
부목사: 아 몇번을 말해? 니가 훔쳐간 물건 몽땅 다시 넘기라고!
영순: 당신 말대로라면 나는 그냥 살인자잖아? 그럼 경찰에 넘겨야지.. 왜 그 물건들이 필요한데?

영순의 말에 부목사 황당하다는 듯이 머리를 벅벅 긁으며 말한다.

부목사: 뭔 미친소리야 또!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영순: 그러니까.. 그게 왜 당신한테 필요하냐고? 말해! 당신이 진짜 원하는게 뭔지! 난 알아야겠어 그래야 당신이 저 광신도들하고 다른종류의 인간이라는걸 알지!

부목사 한숨을 쉬고 진정한다. 그리고 톤을 좀 낮추고 밖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말한다.

부목사: 아이 씨 미친년이 진짜.. 그래 말해줄게.. 난 돈을 원한다. 그 미친 변태영감이 숨긴 돈만 있으면 이 정신나간 것들하고는 영원히 안녕이야 알아? 그러니까 빨리 말해.. 빨리 말하라고 이 미친 살인자년아!

영순 부목사의 솔직한 답변에 만족한다는 듯이 약간 미소지으며 말한다.

영순:... 그래 알았어.. 말해줄게.. 이제 좀 믿을만한 사람을 만났네....당신은 돈을 가지고 맘대로 하고 나는 동생하고 엄마하고 같이 여기서 안전하게 나가는거야... 알았어?

S#.10 봉고차(밤/차안)

신앙촌으로 달려가는 봉고차 PD와 스태프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스탭: 아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PD: 몰라 지금 상황이 심각한가봐 무슨 교주가 죽었다는 둥 그런 말을 하던데?
스탭: 죽어요? 그럼 경찰도 불러서 같이 가야하는거 아니에요?
PD: 야 일단 가서 무슨일이 있는지 봐야 할거 아냐? 괜히 경찰도 같이가서 촬영못하게 막으면 어쩌라고?
스태프: 아니 가서 위험하면 어쩌게요? PD님은 그렇다치고 우리들은요?
PD: 그래서 카메라 들고 가잖아 일단 닥치는대로 찍고 보자. 아 찍고있는데 무슨일 있겠어?
스태프: 저기 그냥 경찰에 신고하죠? 네? 이거 아무리생각해도 저희 능력 밖의 일이에요..
PD: 장난하냐? 다큐 PD가 무서워할게 뭐가 있어? 그딴거 신경쓰면 PD생활 때려쳐야지.

S#.11 교회본부(밤/건물안)

남집사의 환각과 환청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남집사 의자에 앉아있다. 표정이 멍하다. 남집사가 바라보는 어두운구석에서 총재의 모습이 보인다.

총재: (기계처럼 일정한 톤으로) 남집사~

남집사 얼굴은 뭐에 흘린 사람처럼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면서 넋이 나간 표정. 총재는 죽은 사람처럼 얼굴은 시퍼렇고 목에 피가 흐르고 있고 눈은 악마의 눈이다

총재: 남집사~

부목사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에서 나온다. 그때 남집사가 부목사 앞으로 다가온다. 부목사는 이자식 이거 또 왜이래 하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남집사: 부목사님.. 저는 방금 총재님의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총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단을 죽이고 생명책을 찾아오라.. 그러면 부활하실 것이라 명하셨습니다. 마치.. 장사한지 사흘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부목사님에게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 분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나요?

부목사는 당황하면서도 소름끼친다는 표정으로 말한다.

부목사:....그게 대체 무슨.. 아무튼 이.. 일단 방으로 가 계세요. 범인 잡았으니까.. 뭐 경찰에 넘기든 어떻게 하든 일단 지금 사태 수습하는게 먼저입니다.
남집사: 그런데 지금 어디가시는 길인지?
부목사: 저 도둑년이 훔친 물건 되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남집사: 아.. 생명책이요?
부목사: 네?... 아 네. 그래요 생명책이요. 제발 방안에 얌전히 계세요 네?

남집사는 일단 돌아간다. 부목사는 손짓으로 빨리 김비서를 오라고 한다.

김비서: 왜?
부목사: 야.. 저거좀 잘 감시해봐.. 상태가 점점 안좋아진다..
김비서: 뭐 내가? 싫어 무서워!
부목사: 그럼 아무나 좀불러봐 아쫌 지금 물건 찾으러 가야돼..

S#.12 교회본부(밤/건물안)

김비서가 영순을 감시하고 있다. 그때 전화가 온다.

김비서: 네 박집사님...어디요? 지금요? 지금 안되는데...아니 잠깐만요. (전화가 끊어졌다.) 아이 뭐야 씨...

김비서가 짜증을 내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잠시 나간다. 방안에서는 영순이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다. 그때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간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남집사가 고개를 내밀어 영순을 쳐다본다. 영순 아까 자신을 보고 재물을 바치네 어쩌네 한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챈다. 남집사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영순 옆에 놓여있는 쇠컵을 살짝 쳐다본다.

남집사: 우리 총재님께서는 이미 다 예견하고 계셨다. 그렇지? 이 사단아...
영순:...

(플래쉬백)
은혜: 부사관이면 무술같은것도 훈련하겠네? 호신술같은거..
영순: 뭐 그렇지...
은혜: 그럼 강도나 치한이 막 공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영순: 도망가야지
은혜: (웃으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막 못도망가게 막으면?
영순: 음...나같으면...

영순 남집사를 똑바로 쳐다보다가 마치 위에 뭐가 있는듯 위를 쳐다본다. 남집사 자신도 모르게 위를 쳐다본다. 그때 영순 손으로 남집사의 목 울대를 강타한다.

남집사: 윽!!

남집사 갑작스런 공격에 정신을 못차리는 순간 영순은 쇠컵으로 남집사의 옆머리를 내려친다. 남집사 바닥에 쓰러진다. 영순 쓰러진 남집사가 움직이지 않는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온다.

S#.13 교회본부(밤/건물안)

부목사 다른 창고에서 물건을 찾아서 금고가 있는 사무실로 가지고 왔다. 생명책도 있으나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보고는 그냥 옆으로 던진다. 그리고 수첩에서 생각보다 쉽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낸다. 부목사 기쁜 표정으로 금고 앞으로 간다.
(컷백) 영순이 건물에서 나가려는 도중 은색으로 된 문을 본다. 커다란 냉동창고처럼 보인다. 거기에는 크게 안식의 집이라고 쓰여 있다.

(컷백)
부목사 금고번호에 맞추어 잠금장치를 이리저리 돌린다.
(컷백)
영순 주머니에서 열쇠꾸러미를 꺼낸다. 거기에 안식의집이라고 쓰여 있다.
(컷백)
부목사 찰칵소리가 나자 금고 문고리를 잡는다.
(컷백)
영순 열쇠로 자물쇠를 푼다. 찰칵소리와 함께 열리는 자물쇠
(컷백)
금고문이 열린다.
(컷백)
냉동창고 문이 열린다.
(컷백)
부목사의 표정이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변한다.
(컷백)
영순의 표정이 긴장하는 표정에서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변한다.
(컷백)
금고가 텅 비어있고 시디 한장만 있다.
(컷백)
냉동창고에는 시체가 아무렇 게나 그냥 물건처럼 쌓여 있다. 그 중에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널부러진 시체도 있다. 시체의 목에는 이름표가 걸려있다. 영순은 입을 틀어막고 경악스런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간다.
(컷백)
부목사는 시디를 컴퓨터에 넣고 내용물을 본다. 사진과 동영상이 있다.
부목사: 씨발 이게 뭐야..
(컷백)
쌓인 시체들을 보던 영순의 표정이 한곳에 멈춘다. 그리고 가까이 간다. 영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쌓인 시체 밑에 깔려 있는 중년여성의 시체가 보인다.
영순:...엄..엄마...
(컷백)
부목사가 사진과 동영상을 클릭한다. 사진은 총재가 돈다발을 가득 쌓아 놓고 그

앞에서 활짝 웃고 손으로는 브이 표시를 하며 찍은 사진이다. 부목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동영상을 클릭한다.

(컷백)

영순이 눈물을 흘리며 뒷걸음질을 친다. 그러다 다른 시체의 손을 밟는다. 놀라서 뒤돌아 보는 영순. 그때 영순의 표정이 슬픔에서 다시 충격으로 바뀐다. 영순이 내려다보는 시체의 목에 조용덕이라고 쓰여 있다.

영순:... 뭐야... 뭐야.. 그럼 조용덕이 아니면..대체..

(컷백)

부목사가 재생한 동영상에는 총재가 바닥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거기에 현금뭉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서 모조리 태우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걸 보는 부목사의 표정이 충격과 경악으로 일그러진다.

총재: 어이 부목사~ 거 목사씩이나 되가지고 돈을 숭배하면 쓰나~ 응? 흐흐흐흐

그러면서 총재가 미친듯이 웃는다. 부목사가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진다. 넘어진 부목사 뒤로 남집사가 기괴한 표정으로 서있다.

S#.14 신앙촌야외(밤/밖)

영순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일단 살아나가는게 목적이기에 건물에서 나온다. 그때 영순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건물입구의 Welcome to the Happiest World! 가 Welcome to the Maddiest World!(가장 미친세계로 어서오세요!)라고 바뀌어있다. 이곳에서 나가기 위해 정문쪽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가는 길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그쪽을 보니 한창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 자세히 보니 방송팀과 김비서 그리고 신도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급하게 뛰어오는 영순

김비서: 당신들 뭡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피디: 지금 여기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촬영 방해하지 마세요. 야 뭐해 다 찍어

영순: 뭐에요? 경찰은 어쩌고 당신들만 왔어요?

피디: 아 영순씨 여기 있었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총재는 어디 있죠?

김비서: 이거 사유지 무단침입이에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어서 나가 주시죠!

피디: 아 부르세요! 경찰오면 영순씨하고 저희 하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괜찮죠?
김비서: 아.. 아니 잠깐.. 잠깐만요
영순: 당신들 미쳤어?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 경찰도 없이 당신들만 오면 어쩌자는 거야?
피디: 알았으니까 일단 방송부터 좀 합시다. 경찰은 좀만 이따 부를 게요. 야 뭐해 신경쓰지말고 계속 찍어! 야 카메라 들고 저쪽으로 가자! 영순씨 저쪽이 총재실이에요?
영순: 개소리하지말고 씨발 당장 경찰불러!!
피디: 아니 그러니까 좀 진정하고..

그때 어느새 다가온 남집사가 칼로 피디와 카메라맨까지 무참히 살해한다. 그 광경을 본 김비서 주저앉아서 비명을 지른다. (소리는 무음 이명소리) 피가 튄 영순의 얼굴 클로즈업 5초후 상황파악이 끝난 영순은 게이트 쪽으로 미친듯이 전력질주한다.

남집사: 저년 잡아!!

광신도들이 뒤쫓아온다. 영순의 눈에 게이트가 보인다. 그 순간 옆에서 달려들어 영순을 땅바닥에 쓰러트리는 광신도

영순: 야이 씨발 새끼들아 이거 놔!!!

남집사가 다가오고 영순의 머리를 발로찬다. 기절하는 영순 (블랙아웃)

S#.15 예배당(낮/실내)

영순 어머니가 눈을 감은 채 누워있다. 평온해보이는 얼굴 클로즈업. 동생의 얼굴이 보인다. 복잡한 표정으로 죽은 자신의 엄마를 보고 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어떤 신도는 영순의 어깨에 손을 얹어 위로의 눈빛을 보낸다. 어머니 시신 앞에 총재가 추도를 하고 있다.

총재: 자 여러분 오늘도 또 한명의 자매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슬퍼해야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죠. 속세에서 자매님이 할일이 다끝나서 하나님이 부르신것 뿐입니다. 여기 남은 저희들은 아직 해야할일이 있어서 여기 남아있는것이죠.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자매님은 안식의 집에서

먼저 가신 분들과 영원한 휴식을 취할 것입니다. 자 형제님 자매님을 이리로 옮겨주시죠.

신도들이 영순엄마를 바퀴달린 침대위로 옮기고 총재는 혼자 시신을 끌고 간다. 그 모습을 동생이 보고있다. 그때 옆에서 한 신도가 동생에게 묻는다.

신도: 너무 슬퍼하지마.. 언니도 다 이해해주겠지..
동생: 그러게요 언니도 이해할날이 오겠죠.

그 말을 들은 총재 발걸음을 멈춘다.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듯한 총재의 뒷모습.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보고 동생에게 말한다.

총재: 언니가 있었어요?
동생: 네.. 언니가 지금 밖에 있어요. 제 신상명세서에 다 썼는데...
총재: 아 그랬죠. 이것참 미안합니다. 제가 잠시 잊고있었네요. 그렇죠 언니가 있었군요.

그렇게 말하고 총재는 시신을 끌고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S#.16 교회본부(밤/건물안)

페이드인, 영순 정신이 들자 창고에 갇혀있다. 옆에는 김비서가 묶여 있다. 손발이 다시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한다. 영순은 양말에서 조심스럽게 라이터를 꺼낸다.

영순: 대체 총재인가 뭔가 하는 인간은 정체가 뭐 야? 조용덕 아니었어? 니들 같은 사기꾼 아니었냐고?
김비서: 누구? 용덕아저씨? 그 아저씨는 4년전인가 지병으로 죽었어. 총재는... 그 전에 어디선가 왔고.
영순: 뭔 소리야 그게 어디선가 왔다고? 어디서 왔는데? 뭐 하던 놈이었는데?
김비서: 몰라...그냥 왔어...겨울이었나 갈데는 없고 밖에서 노숙할 수도 없어서 왔다고 했어. 용덕아저씨 감방동기였다고 하던데...정작 용덕아저씨는 기억 못하는...그 전에도 사이비 한적 있다고 해서 받아줬지... 그 총재말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잘 넘어와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건데...대체 왜 이렇게 된거야...(눈물을 흘리는 김비서)

영순은 라이타로 조용히 포박을 다시 풀고 김비서의 포박도 풀어준다. 영순은 주변을

둘러보며 무기가 될만한 것을 찾는다. 그리고 김비서에게 도와달라고 한다. 김비서는 반응없이 가만히 있는다. 영순은 김비서의 뺨을 후려갈기며 말한다.

영순: 여기서 울다가 끌려가서 목이 잘려 죽을래?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 죽을래?"

김비서는 그말에 울음을 그치고 영순을 돕기 시작한다. 영순은 주변을 둘러본다. 커피포트와 멀티탭 그리고 생수통이 있다. 영순은 커피포트에서 전기선을 뽑아 멀티탭에 연결한다. 그리고 생수통에 있는 물을 모조리 바닥에 쏟는다. 그리고 김비서한테 저쪽에 있으라고 하고 자신은 문 옆에 숨는다. 비명을 지르는 영순 그 소리에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광신도가 들어온다. 칼을들고 들어오는 광신도는 바닥에 쏟아진 물위로 발을 딛고 그 순간 영순은 전기선을 물에 떨어뜨린다. 감전으로 쓰러진 광신도를 뒤로 하고 영순과 김비서는 일단 그곳을 빠져나온다. 영순과 김비서는 건물을 빠져나가려는데 김비서가 영순을 잡는다.

영순: 뭐야?
김비서: 나만 혼자는 못 나가 우리 오빠도 잡혔어. 가서 구해야 돼.
영순: 미쳤어?
김비서: 우리 오빠 구해야 돼 너 여기서 혼자 나가면 살인자로 경찰에 신고할거야. 우리 오빠 구하기전까진 절대 못나가

영순 김비서의 멱살을 잡고 말한다.

영순: 씨발 몇번을 말해야 알아 처먹어? 나 아니라고.. 내가 안죽였다고!
김비서: 혼자 나가서 감방 갈래? 여기서 나하고 같이 나갈래?

영순 김비서의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을 본다.

영순: (영순 머리를 쥐어짜며)....아우 진짜!..

S#.17 예배당대기실(밤/건물안)

남집사 예배당 대기실에서 책상에 앉아있다. 영순에게서 뺏은 열쇠꾸러미에서 생명책에 맞는 열쇠를 찾아 생명책을 연다. 생명책에서 빛이 퍼져 나와 남집사의

얼굴을 비춘다.

남집사: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남집사 눈물을 흘린다.

S#.18 예배당(밤/건물안)

예배당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하다. 누군가는 교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눈을 감고 계속 찬송가를 부르는가 하면 다같이 모여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많다.

신도1: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신도2: 총재님이 죽었다던데?

신도3: 아냐 죽은 게 아니라 다 예언대로 되고 있는 거래... 곧 부활해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거라고 그러던데?

그때 예배당 커튼이 열린다. 무대위에는 교주의 시체와 부목사가 묶여 있다. 신도들이 크게 웅성거린다.

신도: 아이고 총재님!!!

몇몇 신도들이 총재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다. 남집사 총재의 예배복을 입고 한손에는 생명책을 들고 있다.

남집사: 신도님들... 우리는 지금 위대한 기적이 펼쳐지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밤 우리 신도들을 위협하는 사단의 무리들을 재물로 바치고 나면 마치 예수님이 장사한지 사흘만에 부활하신 것 과 같이 총재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우리 곁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남집사의 말에 신도들이 뜨겁게 호응한다. 다만 몇몇 신도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다.

S#.19 예배당(밤/건물안)

예배당 구석에서 영순과 김비서가 숨어서 쳐다보고 있다. 영순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예배당을 보고 체념한듯이.

영순: 미친 저기서 어떻게 구해?

김비서는 가만히 보고있다가 결심했다는 듯 앞으로 나선다.

김비서: 그거 다 개소리야 이 사람들아!!

영순 눈이 휘동 그래지며

영순: 야 미친년아 바로 그렇게 처들어가면 어떻게 해?
김비서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며 남집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한다.
김비서: 총재는 신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냥 사기꾼이라고! 나도 전과 2범 사기꾼이고 저기 있는 저 사람도 사기전과자야!

김비서가 가리킨 간부 중 한명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인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신도가 일어서며 김비서 팔을 잡고 절망스럽게 말한다.

신도: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비서님? 난 가족들도 다 버리고 전재산 다 털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기라뇨? 그럼 이때까지 한 고생은 뭐가 돼요?
김비서: (괴로운 듯이) 뭐...뭘 뭐가 돼요? 그냥... 벼...병신짓한거지...

그 말을 들은 신도 망연자실하며 바닥에 쓰러진다. 사람들은 더욱 술렁이기 시작한다.

남집사: 흥! 더러운 사단주제에 어딜 함부로 독사 같은 혓바닥을 놀리시나? 여러분 저 여자는 우리 신앙촌의 가족인 척하면서 뒤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이단입니다. 저 여자나 이 부목사나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낱 돈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는 말을 믿으실 겁니까?
김비서: 조까 씨발놈아 너는 정신병원에 평생 갇혀 있어야 할 미친놈이잖아! 네가 약을 계속 처먹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했어야 했어...그렇게만 했어도 이사단은 안 났을 텐데...여러분! 저 사람은 약 없이는 제대로 살수도 없는 심각한 정신병 환자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환각이고 다 환청이에요!
남집사: 그 입 닥쳐!!! 뭣들 하는거야 저 주둥아리를 다물게 하지 않고?

S#.20 예배당(밤/건물안)

김비서와 영순은 무대위로 올라오고 남집사를 따르는 광신도들이 김비서와 영순에게 다가간다. 영순은 칼을 들고 가까이 오지말라며 위협한다. (긴박한 이 순간 뒤에서 교주의 시체가 눈을 뜨며 혓바닥을 메롱 하듯이 날름거린다. 영순이 뒤를 돌아볼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눈을 감는다. 마치 현실과 환상이 붕괴되듯이 혼란스러운 광경)

김비서: 니가 그렇게 죽고 못사는 총재는 누군지 알아? 그 인간도 전과자야... 몇 년 전에 죽은 조용덕 알지? 그 노인네하고 감방 동기라고! 정신나간 노인네가 무슨 생명의 목걸이니 파는 거 그거 그냥 시장에서 아무 목걸이나 사다가 포장지만 바꾼거야 알아? 그 포장지 바꾼게 나하고 부목사라고 이 병신들아! 이 것들 다 사기꾼이라니까!!
남집사: 닥쳐!!!

남집사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미진에게 칼을 휘두른다. 그때 부목사가 온몸으로 남집사에게 달려들어 부딪힌다.

부목사: 왜 왔어 멍청아! 얼른 도망가!

남집사는 자신에게 달려든 부목사를 칼로 찌른다.

김비서: 안돼!!!

김비서 비명을 지르며 남집사에게 달려든다.

S#.21 예배당(밤/건물안)

몸다툼을 벌이는 김비서와 남집사. 남집사 김비서와 싸우면서도 광신도들에게 외친다.

남집사: 뭐해 저 여자도 잡아!!
영순: 이런 씨발 가까이오지마!

영순 저항하지만 여러 명이 달려들어 영순을 붙잡는다.
김비서 남집사와 사투를 벌이다 손가락이 잘린다. 남집사 악에 받친 표정으로 일어나 외친다.

남집사: 그 년 잡아!!

그때 남집사의 눈에 영순의 동생이 눈에 띈다.

남집사: 야 너 이리와 니 가 죽여
동생:....네? 저요?
남집사: 그래 니가 죽여! 천국가고 싶지? 저 년이 죽어야 총재님이 부활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얼른 죽여!

동생 떨면서 칼을 잡는다. 그리고 영순을 쳐다본다.

영순: 야 수진아 수진아 잠깐 야 씨발 하지마 하지말라고 했어!
동생: 어.. 언니 나 너무 원망하면 안돼... 알았지?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해...조만간 심판의 날이 올거란 말이야!! 나는...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언니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상을 지키고 싶어..나 이해해줘야돼.. 알았지?

영순의 동생은 울면서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결국 영순의 가슴을 칼로 찌른다. 다만 세로로 찌른 탓에 갈비뼈에 맞아 치명상은 피한다. 영순 그 순간 동생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남집사와 함께 뒤로 넘어진다. 넘어지면서 생명책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영순 피가 흐르는 상처를 부여잡고 소리를 지르며 가까스로 일어난다. 분노에 찬 눈으로 동생에게 달려든다.

영순: 으아아아 이 씨발 개같은 년이!

영순 동생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린다. 그때 옆에 있던 신도가 생명책을 집어들고 내용을 본다. 그의 눈이 믿기지 않는 다는듯 충격에 빠진다.

신도1: 뭐...뭐야 이게 생명책이야? 나.. 남집사!!! 이거 뭐야??

남집사는 다시 칼을 들어 영순에게로 가려는데 신도가 막아선다.

신도: 이봐 남집사 이게 뭐야? 이거 뭐냐고?

남집사는 미쳐서 칼로 신도도 찌른다. 그 모습을 다른 신도들이 보고 경악한다.

신도2: 뭐하는 짓이야!! 누가 좀.. 말려봐!!

남집사는 신도를 찌르고 칼을 빼내 다시 동생과 다투고 있는 영순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붙들고 목을 그으려는데 영순이 칼을 손으로 잡고 저항한다. 칼을 쥐고 있는 영순의 손에서 피가 새어나온다.

그때 김비서가 비틀거리면서 남집사에게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고 뒤로 당긴다. 이에 남집사는 버티지 못하고 뒤로 넘어간다. 영순은 그 기회를 타 남집사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는다

남집사: 으아아악!!

남집사 목에서 피를 줄줄 흐르며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바닥을 구른다.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 죽일듯한 기세로 영순에게 다가가는데 김비서가 옆에서 남집사의 배를 찌른다.

배를 찔린 남집사 김비서의 목을 조르면서 저항하려고 하나 힘이 빠져서 결국 바닥에 쓰러진다. 그리고 총재의 시체까지 기어간다. 총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채로 숨을 헐떡이다가 결국 사망한다.

생명책이 영순의 동생 옆에 떨어져있다. 동생이 떨리는 손으로 생명책을 펴본다. 동생의 눈이 경악으로 커진다. 교주가 그렇게 아끼던 생명책에는 '병신들 그걸 속고 있냐. 시발새끼들 아 섹스 하고싶다. SEX' 이런 저속한 글과 낙서들로 가득하다.

김비서 피투성이가 된 체 부목사에게로 간다. 부목사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기 직전이다. 김비서를 본 부목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부목사의 손을 잡고 미소지으며 말한다.

부목사: ...몇달전에 미진이 네가 다 때려치고 그냥 도망가자고 했을 때..기억나? 그때 네 말 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미진아...
김비서: (눈물을 삼키며) 그랬어야지 병신아...

영순은 그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본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영순,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어서 터벅터벅 걸어 간다. 남집사가 떨어뜨린 핸드폰을 줍는다. 영순이 가는 길을 신도들이 조용히 비켜준다. 그 모습이 마치 바다가 열리는 것 같다. 그 사이를 빠져나가는 영순.

S#.22 예배당 (아침/야외)

핸드폰을 주워 나오는 영순, 밖으로 나와보니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다 나와서 아무데나 걸터앉는다... 영순 피도 닦지못하고 넋을 잃고 멍하게 앉아있는다. 영순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로 전화한다.

영순: 어.. 나야...영순이...아직도 자? 내꺼 핸드폰? 아 잊어버렸어. 아니 잊어버린게 아니라 어디다 잠깐 뒀어. 이거 누구 꺼냐고? (한숨을 쉬며) 아니 그런거보다도... 내가 너가 전에 했던 말을 생각해봤는데... 그게 참 맞는 말 같아... 그게 뭐냐고?...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 중요한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우리야... 그렇지?

전화를 하는 영순의 머리위로 신앙촌 전경이 보인다. 저 멀리서 사이렌소리가 들린다.

페이드아웃

스탭롤

S#.23 경찰서 낮/실내

중요참고인자격으로 경찰서에 온 영순이 형사와 의자에 앉아있다 영순은 지금까지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 했고 형사는 대단히 진지한 얼굴로 영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영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 입니다.
형사: (담배를 피며) 후우~ 저희도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
영순: 저 그래서... 대체 그 총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형사:...그게.. 저희도 몰라요
영순: 모르신다구요?
형사: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심지어 지문조차도 없어요. 출생신고도 안돼있다는 말이죠. 그야말로 신원불상자라는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국사람이 맞기나 한건지 전혀 알 수 가 없습니다.

영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온몸에 한기가 돋는듯이 몸을 움츠린다. 경찰서밖으로 나오는 영순 멍하니 걷다가 앞을 본다. 은혜가 애잔한 표정으로 영순을 바라본다. 영순 은혜를 보자 감정이 차올라 눈물을 흘린다.

S#.24 시골농촌 낮/야외

젊은 개척교회 목사가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다. 어떻게든 전도를 해보려고 하나 마을사람들은 차갑기만 하다. 그렇게 정처없이 떠돌다가 본인이 문득 본적도 없는 광야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두리번거리며 당황한 표정으로 해매는 목사 그러다 어딘가에 시선이 고정된다.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보다가 뭔가를 발견한듯 손을 흔든다.

그리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에피소드2 종료